

Global Market Report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및 시사점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 및 주요국 반응

- 2 | 1. 대선 결과 및 배경
- 4 | 2. 아르헨티나 및 주요국 반응

II. 향후 경제정책 방향

- 5 | 1. 경제현황
- 6 | 2. 경제정책의 변화
- 7 | 3. 향후 전망

III. 우리나라 對아르헨티나 교역현황 및 향후 영향 분석

- 10 | 1. 교역현황
- 13 | 2. 기회요인
- 14 | 3. 위협요인
- 15 | 4. 현지 전문가 인터뷰

요 약

- 2015년 11월 22일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2차 결선투표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 후보가 다니엘 시올리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 2015년 12월 10일 대통령에 공식적으로 취임
-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70여 년간 아르헨티나 정치를 지배해온 페로니스트(Peronista) 정당 출신이 아닌 우파 대통령으로서 사전수입신고제도(DAJI) 폐지하고 외환규제를 철폐하는 등 향후 아르헨티나의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개혁이 예상됨
- 그러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前대통령은 9일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지 않고 신정권의 반대세력을 정부 요직에 심는 등 마크리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방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며 現정권과의 화합을 거부
- 아르헨티나의 현 경제상황, 야당과의 대립, 원자재 최대 수요국인 중국경기 둔화 등의 대외적 여건을 고려하면 마크리 정권이 실행하는 정책의 단기적인 성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해소, 국제신뢰도 회복, 경제개혁을 위한 과도기 극복 등 여러 난관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바 경제 정상화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함.
- 미국, 브라질 등의 對아르헨티나 주요 교역국들은 대선 결과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경제개혁 시도로 인한 중남미 지역 보호무역 정책 변화와 그로인한 우리기업 진출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I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 및 주요국 반응

1. 대선 결과

□ 대선 결과

- 11월 22일 2차 결선투표에서 캄비에모스(Cambiemos)당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후보가 51.3%의 득표율을 획득, 48.7%의 득표율을 보인 FPV당의 다니엘 시올리(Daniel Scioli) 후보를 2.7%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
 - 본 선거는 10월 25일 아르헨티나 대선 1차 투표 이후 당선자를 결정짓지 못하고 실시된 2차 결선 투표임.
 - 마우리시오 마크리 당선자는 2015년 12월 10일 대통령에 공식적 취임
 - 이를 통해 최근 12년간 아르헨티나를 집권한 키르치네르(Kirchner) 부부의 대통령 체제가 마감됨
 - 마우리시오 마크리 당선자는 2015년 12월 10일 대통령에 공식 취임
- * Cambiemos는 스페인어로 Let's change라는 뜻
- * 키르치네르 부부 대통령 집권 : 남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2003 ~ 2007),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2007 ~ 2015)
-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70여 년간 아르헨티나 정치를 지배해온 팔티도 후스티시알리스타(Partido Justicialista)정당 및 제 1야당인 유니온 시비카 라디칼(Union Civica Radical)당 출신이 아닌 최초의 대통령
 - 캄비에모스(Let's Change)라는 정당명에서 알 수 있듯 이번 당선은 최근 12년간의 경제·정치적인 혼돈에 지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
 -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 외교적인 고립, 30%를 넘는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풀어낼 책임자로 기업인 출신인 마크리 후보를 선택

□ 정권 구성 및 향후 전망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 前대통령은 마크리 대통령 당선 이후 대립각을 세우는데 집중함.
 - 임기 종료까지 친 키르치네르 세력을 정부요직에 심기 위해 새로운 국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조치 시행
 -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FPV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
 - 결국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법원 소송을 대동하여 12월 10일 자정에 前대통령의 임기 끝을 판정 받아 국회 상원의원회 의장 앞에 선서함.
- 마우리시오 마크리 당선자가 내세운 캄비에모스 당(Let's Change)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본인이 설립한 PRO(Republican Proposal) 정당과 제 1야당인 라디칼당의 연합정당
 - 기존 정권에 비해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중도파인 ‘유니온 시비카 라디칼(Union Civica Radical)’당 출신도 4명이 포함됨
 - 특히 이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 정권 출신인 리노 바라냐오(Lino Barañao)가 과학기술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보다 거국적이고 통합적인 내각구성이 이루어졌다는 평을 받음
 - 그러나 국회가 상·하원 모두 여소야대의 형국이라 마크리 정부가 초반부터 강력한 개혁정책을 실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상원 : 15 vs 41, 하원 90 vs 98

2. 아르헨티나 및 주요국 반응

□ 아르헨티나 현지 반응

- (집권당) 마크리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前대통령과는 다른 정책으로 외환규제를 철폐하고 국제 금융시장으로 복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암시함
 - 마크리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前대통령과는 다른 정책으로 외환규제를 철폐하고 국제 금융시장으로 복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암시함
 - ‘前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취임식은 전례가 없다’ 라고 표명하며 구정부와 現정부의 강한 대립 계속될 것이 예상됨
- (非집권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를 비롯한 대부분의 키르치네르 당원들은 마우리시오 마크리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음
 - 마크리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표명하고 있음
 -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된 것에 대해 마크리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며 앞으로 야당 입장에서 12년간 이루어낸 것들을 지키는데 혼신을 다할 것을 알림
- (전문가 및 여론)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치지형과 반개혁세력의 강력한 반대를 넘어설 정치적 지도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림
 - 현지 전문가들은 각자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태로 양분화 되어있음.
 - 조사기관 Opinaia Online Social Research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국민 중 교육의 질이 상승될 것이다(57%), 마약 거래가 하락할 것이다(51%),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51%), 화합을 유도할 것이다(60%) 수치를 보임.

□ 주변국 반응

- **(미국)** 오바마 정부의 고위급 관계자들은 이번 아르헨티나 대선결과를 환영하고 향후 주재국의 경제정책 및 투자환경 변화에 기대를 하는 분위기
 - 과학, 기술, 신재생 에너지, 교육 분야에 협력확대가 기대됨. 특히 에너지 분야에 있어 셰일가스 매장지역인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 프로젝트 참여가 기대됨.
 - 주재국에 진출한 500대 미국계 기업(Ford, Cargill, Citibank, GM, 등)들도 친시장 성향의 새 정부 정책방향에 기대를 하고 있음.
 - 마크리 新정부는 미국과의 우호관계 정상화를 대외정책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음.
 - 향후 TPP 및 태평양동맹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양자 및 다자 경제체제 구축에 협력하기로 함.
- **(브라질)** 전략적 동맹 관계 재구축에 우선순위를 두는 新정부에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MERCOSUR 체제하에 EU와의 조속한 FTA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함.
 - 최근 경제위기가 대두된 브라질은 투자유치가 절실해졌고, 이는 아르헨티나의 新정권의 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남미공동시장을 활용한 양자 및 다자통상 협약을 맺어나갈 것으로 기대함.
 - 또한 남미공동시장의 전면 관세인하를 위한 추가 품목협상이 있을 예정이므로 아르헨티나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브라질 자동차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함.

II 경제현황 및 향후 전망

1. 경제현황

- 현재 아르헨티나 경제는 외환보유고 부재와 35%에 달하는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GDP의 6%에 달하는 재정적자의 3중고를 겪고 있음
- (대외경제) 2001년 디폴트부채 재협상을 거부한 소수 헤지펀드에 대한 지급거부로 2014년 7월 이후 기술적 디폴트 상태
 -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 타격 및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
 - 국제적으로 고립된 외교관계, 파탄위기로 치닫고 있는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정책은 필요가 아닌 필수
- (내수경제) 만성적인 수요부족으로 인한 불경기가 지속되고 정부의 재정적자를 화폐발행으로 보완하다 보니 30%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GDP에서 정부공무원, 복지지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배로 증가, 특히 교통, 전기 등 공공요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과다한 것으로 파악
 - 아르헨티나 정부는 가격 통제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
 - 재정적자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화폐발행을 축소하고 복지예산을 삭감할 경우 단기적인 불경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

2. 경제정책의 변화

- (외환규제 폐지) 2015년 12월 16일 외환규제 철폐로 인해 개인과 기업의 환전, 기업의 배당금과 수입대금 등의 외환 송금이 자유로워짐
 - 암시장 환율이 없어지고 각종 환율 시스템이 국제 시세에 맞게 하나로 통합됨

- 외환규제가 철폐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전망이나 20% 이상의 폐소화 평가 절하를 가져와 수입업체들의 수입 부담은 커짐
- **(비관세장벽의 변화)** 2012년부터 운영되어오던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2015년 12월 23일부로 전면 폐지하는 대신 수입모니터링 통합시스템(SIMI) 도입

사전수입신고제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수입규제로서 201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 제품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조치가 WTO의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함. 이에 앞서 미국은 2012년 유럽연합, 일본과 함께 아르헨티나의 사전수입신고제를 규정위반으로 제소하였음.

- 마크리 대통령은 취임 후 사전수입신고제를 전격 폐지하고 새로운 수입모니터링 통합시스템(SIMI*) 도입
- 아르헨티나 생산개발부장관은 수입모니터링 통합시스템 시스템은 기존의 사전수입신고제와 같이 아르헨티나 국세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사전수입신고제와 달리 인증절차가 단순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발표함.
- 수입모니터링 통합시스템(SIMI) 하에 19,000여 개의 품목이 관리되며 이중 18,000개의 품목을 자동수입처리 할 예정
- 비자동수입승인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1,000개의 품목은 아르헨티나 내에서 생산되는 민감 품목
- 10일 내 수입승인 처리를 명시한 수입모니터링통합시스템(SIMI)으로 인해 통관 시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동 기간은 관련 기관의 특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여전히 존재함.
- 마크리 대통령은 수입업체들과 일부 경제단체의 반대를 의식하여 무분별한 수입개방은 없을 것으로 발표하는 등 아르헨티나 수입 장벽 완화는 향후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수입모니터링 통합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는 아르헨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afip.gob.ar/simi/)를 통해 확인 가능

3. 향후 전망

- 아르헨티나 경제는 정부의 긴축정책, 복지축소, 새로운 정책 시도를 위한 정치권의 갈등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됨.
- **(채권단 협상)** 국제금융시장으로 재진입을 위해 채권단들과의 협상을 재개될 전망
 - FDI 유치 가능성이 낮은 現상황에서 외환보유고를 올리기 위해 국제금융시장 활용이 필수
 - RUFO(Rights upon future offers)조항 만료로 인해 채권단과의 협상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소대야 형태의 국회 및 대국민 설득이 관건

* Rights Upon Future Offers(RUFO) : 모든 채권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부채를 상환하게 하는 조건
- **(재정지출 축소)** 비대해진 정부재정지출을 축소하고, 국영기업 개혁을 통해 재정손실을 줄일 것으로 예상됨
 - 마크리 대통령은 GM아르헨티나 대표인 이셀라 코스탄티니(Isela Costantini)를 아르헨티나 국영 항공사 아에로리네아스 아르헨티나스 대표로 선임하며 국영기업 개혁의 의지를 보임
 - 정부의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화폐량 증가를 실행한 중앙은행 총재 사임으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 재정지출 삭감하여 재정을 안정화 하고, 외환제도를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급속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기악화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관건
- **(정부기관 자율성 보장)** 마크리 당선자는 각 정부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 현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정확한 수출입 통계가 전무한 상황
 - 각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경우 향후 보다 공신력 있는 아르헨티나 경제 관련 데이터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외교관계 수립)** 기존 중국,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과의 경제협력관계를 미국, 유럽 등 협력관계로 변경
 - 크리스티나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한편 중국,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외화 및 석유를 조달

- 향후 다시 국제경제 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해 미국, 유럽과의 협력관계 구축 전망
- 마크리 대통령이 실행하는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불경기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변화로 인해 기존 기득권층 및 피해계층의 불만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장기적인 숙제로 전망됨

< 마크리 정부의 공약내용 및 예상효과 >

구분	공약내용	예상효과
무역정책	▶ 사전수입신고제(DJAI) 폐지 ▶ SIM 도입	○ 수입의 최대 걸림돌인 사전수입신고제가 폐지하는 대신 수입모니터링시스템(SIM)을 도입 - 새로운 수입규제정책 도입으로 자국 산업 보호 정책 계속될 전망
외환정책	▶ 공식환율/비공식환율 단일화 ▶ 외환송금규제 철폐	○ 외환송금규제 철폐로 수입절차는 간편해졌으나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압박 ○ 폐소화에 대한 신뢰도 회복으로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상승 및 달러화 유출 감소 전망
재정/통화정책	▶ 소득세 면세점 인상 ▶ 기존의 실업/연금수당 등 복지예산 유지 ▶ 재정적자 보충을 위한 화폐발행 중단	○ 30~40%에 이르는 前정권의 굳건한 지지층의 동요를 막기 위한 고육책 추진 예상 - 그러나 공약과 같이 세입을 줄이고 세출을 그대로 두며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어려울 전망 ○ 환율상승 및 인플레이를 통한 실질임금 및 재정부담 삭감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음

III

우리나라 對아르헨티나 교역 현황 및 영향 분석

1. 교역현황

□ 아르헨티나 교역동향

- '14년 1분기 무역흑자는 전년 동 분기 15억 달러에서 하락한 약 1억 달러로, 이는 2000년 이후의 분기들 중 가장 낮은 무역흑자액이었음
- 산업생산량 또한 전년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엄격한 수입규제정책으로 인해 수입이 곤란해지거나 까다로워지며 어려움이 직면한 것이 무역흑자와 산업생산량 감소로 이어진 것

<지난 10년간 아르헨티나 무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3Q)
수출 (증감)	56,358 (23)	71,486 (27)	94,577 (32)	72,368 (-23)	87,963 (22)	93,630 (6)	84,770 (-9)	83,672 (-1)	84,825 (1)	66,259 (-22)
수입 (증감)	30,193 (21)	39,358 (30)	49,164 (25)	34,113 (-31)	51,643 (51)	69,718 (35)	66,578 (-5)	73,463 (10)	62,418 (-15)	43,353 (-31)
수지 (증감)	26,165 (25)	32,127 (23)	45,413 (41)	38,255 (-16)	36,319 (-5)	23,911 (-34)	18,191 (-24)	10,209 (-44)	22,406 (119)	22,905 (2)

자료: NOSIS

□ 외국인 투자 동향

-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진출에 대한 무차별 원칙을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현지에서 창출된 수익금의 본국 송금이 어렵고 현지에 재투자하기를 요구하고 있어 현지 투자 진출을 위한 유인이 적은 편
 - 지금까지 현지 생산을 동반한 진출 사업의 경우, 前정부의 현지 생산 기업 보호를 위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 현지 시장 점유에 유리한 조건을 누릴 수 있었음
- 자원이 풍부한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전략적 원료 확보를 위한 투자진출도 장기적으로 유망한 사업 분야로 평가되는 중
 - 동물서 원료, 곡물, 희토류 자원 등이 해당됨
 - 마크리 정부의 경제정책의 효과를 관망하여 투자진출 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경제교류 일반 동향

-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무역은 1990년대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 교역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0년 이후 2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이 매해 진행 중이며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은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공산품 중심으로 이뤄지는 중
 -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부품, 액정 디바이스, 합성수지 등
 - 주요 수입 품목은 농산물 및 원자재 중심으로 사료, 옥수수, 대두박, 동광, 기타어류 및 광물이 이에 해당됨

< 對아르헨티나 연도별 교역동향 >

(단위: 백만 달러)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수출	330	489	578	494	909	1,081	972	1,074	753	698
수입	556	731	914	672	794	1,048	1,427	1,195	501	438
수지	225	242	336	177	114	32	454	120	252	259

* '15년 1월~8월 누적통계

* 자료: KITA 무역통계

<對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MTI 6단위)>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14		'15 (~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851770	기타 전화기 부분품	167,347	14.0	204,961	36.1
2	847989	기타 기기류	10,385	448.2	37,587	30.1
3	870323	실린더(1500cc~3000cc)	15,996	-92.3	35,509	-11.1
4	901380	액정 디바이스	42,765	-60.0	33,738	257.6
5	852990	각종 안테나 및 부분품	42,755	-38.5	31,486	533.6
6	291736	테레프탈산과그염	40,386	223.1	23,516	151.3
7	390690	기타 아크릴 중합체	27,332	16.1	11,170	-40.2
8	840734	실린더(1,000cc~)	12,538	-35.3	9,596	189.9
9	870332	실린더(1500cc~2,500cc)	2,815	-87.1	9,515	-4.1
10	820730	프레싱용, 스템용, 펀칭 용공구	0	-99.9	8,176	421.8

* 자료: KITA 무역통계

<對아르헨티나 주요 수입 품목(MTI 6단위)>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14		'15 (~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230400	대두유	32,607	-18.3	237,509	628.4
2	261610	은광과 그 정광	42,705	124.1	50,713	-48.5
3	150710	조유	152,682	-28.1	48,590	76.5
4	030382	가오리와 홍어	26,733	5.2	29,852	79.1
5	100590	기타 옥수수	136,442	-82.9	29,274	-18.6
6	260800	아연광과 정광	20,647	413.1	7,293	47.5
7	030617	기타 새우류	9,060	276.8	4,692	9.7
8	283691	탄산리튬	4,018	480.6	4,276	-72.4
9	220421	2리터 이하의 포도주	3,608	13.8	3,083	9
10	'0811	땅콩	3,922	5.6	2,820	0

자료: KITA 무역통계

- '15년 10월 기준 對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 순위를 보면 1위 및 2위에 차지하는 기타 전화기 부분품 및 기타 기기류 수출액이 30% 이상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수입은 농산품 및 원재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15년 10월 기준 대두유 수입률은 628.4%로 대폭 상승했으며 2위 품목인 은광은 '14년도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 '15년에 들어 증가율이 반으로 떨어짐
 - 특이사항으로 현지에서 소비되지 않는 가오리와 홍어 품목이 75%가 넘는 증가율을 보임

2. 기회요인

□ 수입규제 및 외환규제 철폐로 인한 수출기회 확대

- 기존의 수입규제가 풀리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시장개방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그동안 수입을 하고자 하는 바이어가 있어도 규제로 인해 거래가 불가능하였으나 DJAI폐지로 한국제품 수출이 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새로 도입된 수입모니터링 통합시스템(SIMI)이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찰이 필요함

□ MERCOSUR 공동시장에 접근성 향상

-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연이은 경제위기로 인해 MERCOSUR 전반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아르헨티나 신정부 출범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MERCOSUR의 대외공동관세, 역내 호혜관세를 고려 시 브라질, 파라과이 등 MERCOSUR 국가로의 투자진출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3. 위협요인

□ 경제개혁 및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기침체 및 이로 인한 내수시장 고갈

- 최근 10년간의 자원붐이 끝나면서 아르헨티나를 포함, 중남미 전체 경기가 악화되고 있음
- 재정/환율/인플레이의 3축을 잡고 경제제도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경우 2016년 심각한 불황은 불가피

□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및 인플레이 압박으로 인한 수입구매력 약화

- 현재 50%~60% 수준인 공식/비공식 환율이 통합될 경우 50%이상 환율평가절하가 되어 수입물가 대폭상승 및 인플레이션 상승요인으로 작용
 - 이미 25% 수준에 이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추가상승압력이 더해질 경우 수입제품 구매력은 상당 수준 떨어질 것으로 전망

□ 시장개방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경쟁자의 등장

- 폐쇄형 경제에서 개방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그동안 수입규제로 인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던 경쟁기업들이 아르헨티나 시장에 신규진출, 경쟁심화

4. 현지 전문가 인터뷰

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前정권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량은 점차적으로 줄어 올 한 해 동안 (11월 누적생산량) 약 50만 8천대를 생산되었으며 작년 같은 시기 대비 11.9%가량 줄어 든 상황
 -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산업규모 상 약 60만대 생산을 유지한다면 괜찮은 상황이며 판매량도 꾸준히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음.
- 자동차 업계는 前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관련업계의 투자가 저조했고 정권 교체시기에 맞춰 새로운 모델 개발 및 생산, 생산라인 확장 등을 계획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산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자동차 생산관련 협회 A 관계자: “마크리가 집권한 이 후 점진적인 수입규제의 완화로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현지 부품생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이 외에 신차 구매 시 발생하는 국내세, 인플레이션 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자동차 판매업계의 상황이 뒤 바뀔 것으로 예상됨”

나. 전자제품 및 기기류

- 아르헨티나 전자제품 제조협회 CAFED(Camara de Fabricantes de Electrodomesticos) 측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전 정권에서는 국내산업 보호 및 현지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였음
 - 이로 인해 국내 전자기계 제조 기업들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왔음
 - 새로 집권하는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유지해주길 희망함.
- 위협요인으로서는 신정권이 수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만약 중국산 저가 제품이 아르헨티나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현지 전자기계 제조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 통합으로 공식 환율이 30% 땄 경우 현지에서 제조되는 전자제품의 가격도 가격상승압박을 상당히 받게 됨

- 산업 기기를 유통하는 아르헨티나 바이어 S사는 이번 정권 교체가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수입규제가 완화될 경우 해외 제품들이 아르헨티나 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현지 생산 기업들이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기기를 교체할 것으로 예상
 - 그동안 현지 기업들은 정부의 보호 정책으로 인해 제품의 품질이 낙후되고 경쟁이 제한적인 환경에 길들여져 있음

현지진출 한국기업 A社 관계자 : "이번 정권 교체로 인해 수입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공급할 수 있는 기기수량이 제한되어 시장 확장이 어려웠으나 향후 시장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다. 기타

- 아르헨티나 수입협회(CIRA) 관계자에 따르면 마우리시오 마크리 신정부의 장기적 기회의인은 보호무역주의 철폐로 인한 수입시장 재활성화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외환규제 철폐에 따른 페소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수입업체들은 수입대금 환전에 기존보다 60%이상의 더 많은 페소를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입대금 미지급 문제가 확산 될 수 있으며, 수입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및 브라질산 제품이 현지 수입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측면에서 외환규제 철폐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수출 대상국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
-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해소, 국제신인도 회복, 경제개혁을 위한 과도기 극복 등 여러 난관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바 아르헨티나 경제 정상화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성장둔화 및 브라질 경제침체, 국제 곡물가격 하락 등의 대외적

악조건에 경제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 전망

- 또한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아르헨티나는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존재함
- 그러나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경제개혁 과급효과로 인한 중남미 지역 보호무역 정책의 변화와 그로인한 향후 진출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끝.

2016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번호 부여일
16-001	2016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5.12
16-002	2016 전략시장 진출방안 설명회	2015.12
16-003	2016 글로벌 투자유치전략 설명회	2016.1



작성자

◆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윤예찬 과장
◆ 구미팀 백승원 대리



Global Market Report 16-001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6년 1월 7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86926-84-0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및 시사점
